



북한방송 주요논조

2013. 3. 27(수)
통 일 부
[정 세 분 석 국]

● 대남동향

- **【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(3.26)】** B-52폭격기 훈련, 천안함 폭침 北과 연계, 김일성父子 동상 타격 등 거론, '1호 전투근무태세에 진입, 단호한 대응의지를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과시하게 될 것'이라고 위협(3.26,중통·중방)
 - ① 전략로켓트·장거리포병부대를 포함한 모든 야전포병군 집단들 '1호 전투근무태세'에 진입,
 - ② 南 당국자들에게도 우리 군대의 초강경 의지를 물리적 행동으로 보여주게 될 것
 - ③ 전세계 진보적 인류에게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설 것 호소
- **【「조평통」 대변인 성명(3.26)】** '김일성父子 동상 타격 계획' 관련 '北 최고존엄을 해치려는 행위로 청와대를 비롯한 대결모략 소굴들을 흔적도 없이 짓밟게 버릴 것'이라고 위협(3.26,중통·중방)
 - * 중통 논평을 통해서도 '최고존엄을 노린 특대형 정치테러행위는 韓美 체제전복 책동이 본격적 실행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고 거듭 비난(3.26,중통)
- 천안함 폭침 3주기(3.26) 관련 '韓美의 계획적 음모의 산물, 우리(北)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이명박 일당이 조작해 낸 특대형 모략극'이라고 책임 전가 (3.26,중통·노동신문/46명의 생명을 제물로 삼은 극악한 음모/3월 26일과 반공화국 대결의 계단식 확대)
 - * '천안함 폭침 3주기 추모식 및 응징의 날' 제정 관련 '現 긴장국면을 틈타 북침전쟁의 도화선을 달려는 고의적 책동'이라고 거듭 비난(3.26,중통·노동신문·평방/멸망을 재촉하는 대결광대극/천안호 사건을 걸고 감행되는 무모한 대결소동)
 - * 천안함 폭침 3주기를 맞으며 '南 해군이 3.25일부터 서해상 대규모 해상기동훈련에 광분하고 있다고 인용 비난(3.26,중통)

- 중통 논평, 駐韓美軍 범죄(성추행, 경찰폭행 등)를 거론하며 'SOFA의 부당성과 미군철수 투쟁' 선동(3.26, 중통)

● 대내동향

- 黨 중앙위 정치국, 3.26 '중대문제를 토의결정하기 위해 黨 중앙위원회 전원 회의를 3월말에 소집' 결정서 발표(3.27, 중통)
- 平北 박천견직공장 비로도(*섬유털이 치밀하게 심어진 직물) 직장 준공식, 3.26 리무영(내각부총리)·리만건(평북도당 책임비서) 등 참가下 진행(3.26, 중통)
- 김일성 생일 즈음 '제3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', 4.11~18 평양에서 진행 예정 (3.26, 중통)
- 독일 그리스도교민주동맹 공동그룹 서기장(만프레드 그룬드), 3.26 금수산태양 궁전 참배(3.26, 중통)
- 제10차 전국농업근로자 농구경기대회 개막식, 3.26 김일성종합대학체육관에서 진행(3.26, 중통)
- 北, 광명백과사전(全 20권) 새로 출판 및 도서에 김정일상 수여(3.26, 중통)

● 대외동향

- 【北 외무성 성명(3.26)】 '韓美의 핵전쟁 도발책동(B-52폭격기 훈련,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, 김일성父子 동상 타격 등)으로 한반도에서 일촉즉발의 핵전쟁 상황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안보리에 공개통고, 反美전면대결전의 최후단계에 진입한다고 위협(3.26, 중통·중방)

- 미국의 亞·太지역중시전략 관련 ‘對北 군사적 위협과 봉쇄정책을 쓰기 위한 것, 전쟁의 포성을 울린다면 駐韓美軍 기지는 물론 태평양사령부까지 초토화해 버릴 것’이라고 위협(3.26, 중통·노동신문/침략군은 어디에 있든 초토화될 것이다)
- 중통 논평, 美 워싱턴포스트의 ‘北 외교관들의 마약판매명령 실행’ 기사를 否認하며 ‘마약유입통제를 국제·국내법에 준해 엄격히 진행, 자기(美)의 마약범죄 행위나 문제시하라’고 비난(3.26, 중통)